

세계가 인정한 '전통 건축 공장의 기술' -건조물 목공-



2020년에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관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 건축공장의 기술'. 그 건축기술 중 하나가 못 같은 쇠붙이들을 사용하지 않고 기둥이나 보 등의 오래된 목재를 재이용하는 기술인 '건조물 목공'입니다.

예로부터 일본의 목조건축을 지탱해 온 이러한 장인의 기술은 중요 문화재 건조물의 복원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 구 스즈키 가문의 주택의 보존 수리 공사에서도 이러한 전통적인 건축 기술을 구사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 복원을 통해 장인에게서 장인으로 후세에 대한 기술 전승도 이루어져 갑니다.

【COLUM】 목공은 다시 한번 목재를 소생시키는 기술



◀ 사진 왼쪽: 쓰기테 (이음매)

◀ 사진 중앙: 고미센 (색목)

◀ 사진 오른쪽: 하나센 (턱장부)

【못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 -쓰기테(이음매)와 시쿠치(접합)-]

목재와 목재를 연결할 때는 쓰기테(이음매)라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또한 기둥처럼 수직 방향 목재와 보나 층도리처럼 수평 방향의 목재가 연결되는 부분을 시쿠치(접합)라고 합니다. 이러한 쓰기테나 시쿠치에서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쓰기테의 형태나 '고미센(색목)' '하나센(턱장부)' 등의 나무못으로 고정합니다.

【고재목의 보수 -쓰기테, 하기키, 우메기-]

문화재 건조물의 보존 수리에서는 고목재를 가급적 남기면서 복원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부식된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운 목재를 덧붙이는 '쓰기키' 나 새로운 목재를 겹쳐 붙이는 '하기키', 그리고 구멍이 생긴 부분을 메우는 '우메기' 등 부식된 고목재를 계속해 사용해 가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전승되어 왔습니다.

▶ 사진 왼쪽: 쓰기테

▶ 사진 중앙: 하기키

▶ 사진 오른쪽: 우메기

